

## 한중일 정상회담(08.12.13) 주요내용

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 회의에 참석, 3국간 동반자 관계 구축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긴밀한 협력에 합의했다.

### □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

-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 회의에 참석, 중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원자바오(溫家寶) 총리와 아소 다로(麻生 太郎) 총리가 참석
-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정상들은 3국간 동반자 관계 구축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긴밀한 협력에 합의하고,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원칙을 재확인
- \* 한·중·일 정상회의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ASEAN+3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어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3국내에서도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

### □ 협의 내용

-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3국이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환, 「국제금융·경제에 관한 공동성명」 발표
- 이명박 대통령은 관계 장관들 간의 신속한 정보교환으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공동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
- 한일, 한중 간의 통화스와프 확대 합의를 높이 평가하고, G-20 금융 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과 역내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더욱 확대, 강화하기로 합의

- ASEAN+3, EAS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하고, 3국은 상호보완적 형태로 연계해 나갈 것을 합의
- 3국 정상은 북한의 비협조로 6자회담이 결렬된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

## □ 성과

- 3국 정상은 ‘개방성, 투명성, 상호신뢰, 공익,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’을 원칙으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재확인
  - 「국제금융·경제에 관한 공동성명」을 문서 형식으로 발표
  - 방재, 금융 분야의 「행동계획」을 발표
- 한중일이 돌아가면서 연1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

## <참고자료>

‘이 대통령, 한중일 정상회담 마치고 귀국’ (매일경제 2008.12.13), ‘한중일 정상 “위기극복 공조, 6자회담 결렬 유감” ’ (연합뉴스 2008.12.13) 등 국내 주요언론 보도 종합